1/25/26 광야와 성막
주일2부 핵심 출36:8-13

출36:8-13
8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 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9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10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11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12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13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들어가는 말씀>
인간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눈이 어둡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하기에 예배를 늘 드려야 한다. 문화의 영향으로 자꾸만 예배를 경시하는 경우로 자꾸 흘러간다. 1부 예배도 천천히 온다. 캘리포니아 답게 천천히 누리면서 오는것이다. 2부예배는 거의 머리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이 거의 70%될것이다. 30%정도는 2부 예배 드려야 주일 성수한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여러분은 30%정도로 이자리에 모습을 나타난 사람들, 아주 영광스런 얼굴들이다. 한국은 70%정도는 2부예배까지 드려야 주일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유럽은 교회를 안가도 전혀 반응이 없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 어쩌면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찌보면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다르다. 실제로 마지막때가면 한명도 없을수도 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구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를 거슬러올라가야 하는게 사명이다.

1부예배도 고치고 2부 예배도 고치고 그래야 한다. 저는 당회때도 한번 이야기한적이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난뒤에 1부 예배는 찬양을 시작한다.옛날에 우리교회 처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참신하고 괜찮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예배 중간에 찬송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아 그런가?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눌려있던게 있었다 그런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땡 종치면 시작인데 오늘 예배드릴 사람이 다 앉아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다. 이거 진짜 한번 바꾸어야 하는게 아니냐 늘 그런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도 미국에 영적인 형편이 예배 마지막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간 어떤분이 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적이 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땡 하면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한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 온다 문닫아 그 목사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무슨소리냐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는것이다.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문화권은 없을 것인데 어찌되었던 미국문화를 따라가서는 안될것이다.

미국문화의 주류는 결국 백인아니겠는가? 백인교회는 이러는지는 모르겠다. 설교 시작될쯤 거의 다 온다. 그때도 기웃기웃해서 오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위해 레위 지파를 따로 만들었다. 잘아는데로 너는 일하지마, 예배만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 필요한 모든것을 하라. 땅은 전부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단이 항상 역사하기 때문이고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로 특별히 구분되었다. 다른 지파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와야 한다. 이것이 십일조 개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것은 예배이기때문이다.
그 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이며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저주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죽이스라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된 때는 항상 언약을 고백하는 예배가 없었던 때였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답이 나온다. 그것을 하는곳이 성막이다.

1. 성막-진자 중요하다. 성막이 뭘까라고 물으면,
1) 광야의 나침반 - 성막에서 할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야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일단 물이 있어야 한다. 먹는것도 먹는것이지만 일단 물이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인도받는 방법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것이다. 꼭 같다. 레위지파를 구분했다는것은 굉장한 메시지이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만 일하지마 예배만 해라. 그러면 전 백성을 이끌어 갈거야 이것이 레위지파의 신분이다. 그게 굉장한 메시지이다. 레위지파에 대한 메시지도 되지만 백성들에게 예배가 뭔지 약속의 피제사가 뭔지 알리는 굉장한 메시지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2) 광야를 정복하는 시스템 - 성막은 광야를 정복하는 시스템이다. 힘들다. 노예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데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셨다. 언약궤, 그안에 기구들 만드는 법이 나온다. 완성한후에 옮기는 일을 레위지파들에게 할일이 정해진것이다. 딱 그자리에서 해야 한다. 여하튼 이것이 광야를 정복하는 시스템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시스템화 되면 내 인생을 정복하는 시스템이다.
3)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곳 – 출29:42 말씀을 받는 곳이다. 오늘 너 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것이고 말할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하면 죽는다. 400년동안 예수님 오시기전에 선지자가 한명도 없었다 성경은 있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구약성경을 연구했다. 저희끼리 연구하다가 나타나는 결과가 바리새인이다.

400년동안 저희끼리 연구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나온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은것이다. 왜 이리되었냐? 말씀이 없어서. 왠일인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그게 말씀이다. 자꾸 듣기때문에 예사로 생각하는데 안들으면 난리난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성막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어디서든지 단을 쌓으면된다. 그 단을 쌓는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도 되고 말씀도 받는곳이다. 아브라함, 노아는 그리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전까지 개인적으로 생각있는 사람은 자기가 양잡아서 단을 쌓았다. 그런데 성막이 만들어졌기에 여기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다. 옛날처럼 단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아니다 내가 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다. 히스기야시대에 산꼭대기에서 산당이라는곳을 싹다 부셔버렸었다. 성막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말씀도 받아야 한다. 이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것이다.
4) 이스라엘의 저주를 해결하는 비밀- 그것이 성막이다. 성막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피제사이다. 이것이 성막이다. 오늘 날 교회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에배이다 항상 그렇다 내 안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리 된 사람들은 예배를 달리 본다. 어느날 이 눈이 딱 열리는것이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란다.
성경에 약속한대로 응답을 받는다.

2. 예배 100% - 교회 300%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결국은
1) 언약의 예배만 살아 있으면 된다 - 예배를 가지고 살아라 중요한 이야기이다.
2) 레위 지파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게는 중요하다. 언약을 잡은 예배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받게 되고 그때 만나주신다고 하셨다.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듣는다. 와서 그냥 앉아서 메시지만 늘 듣고 있다는것도 듣는것이다. 진짜 들으려면 내게 들어와야 한다.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부다 레위지파가 되어야 할것이다. 지금은 누구든지 레위지파가 될수 있다 왕같은 제사상이다 벧전2:9 이런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있다 저기있다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하셨다. 레위지파 되시기를 바란다. 마음에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3) 세상과 인생을 정복하는 비밀이다. 우리가 인생을 정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줘야 한다 언약 딱잡고 300% 말씀을 듣는중에 그게 내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자꾸 말씀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이다. 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것이 안된다. 그 말씀이 분명히 답인데 내것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늘 듣기만 하다가 어느날 그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시작이다.
4)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아침, 낮, 밤 기도에 대한 시스템 늘 듣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줄 믿는다. 아주 아무나 되는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이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나 예배가 시스템이 되면 얼마든지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 그래서 정말로 예배, 기도, 말씀 언약되기를 바란다.

3. 성공하는 예배-다시한번 말씀이 확인 되기를 바란다. 늘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신다. 제일 중요한것은 성공하는 예배는
1) 언약이다. 예배는 예배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이 잘없었다 그래도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 울고 그랬으니 그러나 사실은 힘이 없었다 그냥 은혜받고 끝이지 다음단계를 스스로 할수없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 당해도 위로하거나 교회가자 이정도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모르고 옛날처럼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가? 저도 해보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락방 들어올때 아이들, 지아는 초등학교 6학년, 그때쯤 되면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진다. 그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옆길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시기에 딱 답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하면 아이 놓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이 아주 달라질수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중요한것은
2) 진실한 마음 – 기도, 하나님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진실한 마음이다. 언약이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지속한다. 그리고 예배에 감사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언약은 알고 있다. 이것이 들어와서 내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결정이된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3) 하나님의 소원 - 하나님의 소원은 근본언약은 아니다. 하나님소원 세계복음화는 제2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을 한다. 물론 근본 언약이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만 있는것이 아니고 가나안땅으로가는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가야할 방향이다.어느날 세계복음화가 내게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런 중에 아주 중요한
4) 지속하는 개인 예배 - 아침, 낮, 밤, 개인예배이다. 혼자서 하나님앞에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것이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것이다. 한번씩 가다가 해도 된다. 이런 정신으로 언약기도를딱 쓴다. 중요하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이것이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필요없다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사실은 다니엘이 사실 그시대의 리더가 되었다 바베론의 왕이다 실질적으로 왕이다. 이 서밋시간 성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란다.

4. 결론
1) 용서하지 않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남에 대하여 헐뜯거나 비난의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그 사람 당장 이야기 한다 네도 나처럼 되봐라 그러니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되다. 가족끼리는 그리해도 교회에서는 그리하면 팽 하고 돌아서버린다. 물론 가족들중에서도 집나간 사람이 있을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한 사람 전도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내 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너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지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것이고 고난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의 지나온 시절을 보면 다 그렇다 여기에 예외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2) 류목사님의 어느 메시지중에서 한 이야기이다. 어떤 사람이 예배가 안된다는것은 은 죽은 것이며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심한 말이지만 사실이다. 예배를 안드려도 된다는 사람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앞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조금 심하다 강하다 싶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사실이다. 내가 예배가 안된다 양심적으로 고백을하라 하나님 나 죽었어요 영적으로.,, 안그럴까요? 기도가 안돼? 영적으로 죽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된다. 어디에 있기에 기도가 안되는가 사단과 세상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으면 기도가 안되겠는가? 내 마음이 양심에만 있어도 기도가 된다. 그러니 이 런 말이 심하더라도 사실이다. 예배가 안된다 죽었다. 미안한 이야기인데 나는 1부 예배로 끝이야 그게 예배에 대한 분량이다. 나는 하루에 한시간 기도하면 끝이야, 그 사람 자기 기도 분량이 그렇다. 나는 그것으로 안돼 24다. 그게 그 사람의 기도 분량이다. 그 만큼 은혜 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인생이다. 어느정도 될것인가 결국은 언약이고 예배이고 기도이다. 여기에 대하여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나는 1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끝인가? 그것도 1주일에 한시간 예배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중도 없고 2부 예배 생각없고 전도도 한번도 생각없고 남미도

갈사람 가라 그러면 그 인생은 그정도이다. 예배가 안된다 죽은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해보라. 무슨 이유때문에 예배에 안온다. 무슨 이유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는 아니다. 무슨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이다. 그러면 무슨일이 있으면 주일날 간단히 제껴버려.. 그게 그사람이다. 나는 왜 이리 산다는데 네가 왠 말이 많아라고 하면 상관없다. 죽든지 살든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죽지 왜그래? 한다면 할말없지만 그것은 바른것이 아니다. 결국은
3) 예배를 지속하는 자는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지속해야 한다. 답이 뭔가? 답은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찌하라는 말인가? 그 언약을 해야지 하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이다. 언약으로 잡는것이다. 롯은 알면서도 안했어 언약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 중에도 단을 지속했다. 물론 그 불신앙이 언약에 대한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롯은 안했다. 오늘 주제가 언약이고 예배이다. 롯은 예배는 안해, 그게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 차이이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드러난다. 오늘 나온 단어 중에서는 레위지파를 구분했다. 넌 아무것도 하지마 예배에 관련된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거야 너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할것이고, 우리 다 레위지파 되기를 바란다. 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속하면 응답이 계속되니 정복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늘 듣고 있으면 때를 따라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신다. 그 말씀이 매주 이래 나오는 사람은 없다 한번씩 가다가 나온다. 1년 지나고 나온데 보면 군데 군데 있다. 10년 20년 지나고 난뒤에 보면 그때, 몇년만에 응답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100% 기도 100% 말씀100%로 하시니 이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생정복하고 땅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